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30여 년 동안 늘려 오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갑자기 16.6%나 삭감된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들에게 격하게 반발하고 나설 게 뻔한 일인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비효율과 카르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작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그에 따른 올 3월의 예산안 편성 지침 따위는 과감하게 폐기되고, 기관별 조정도 덜 된 듯한 예산안이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거침없는 과단함과 용기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민간의 연구개발 예산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3배를 넘어서 시점에서 소중한 혈세를 구태의연한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아니면 지원하지 못할 분야를 잘 가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에 동의한다. 정부 출연기관의 기획에 참여한 연구진이 과제 수주와 평가에까지 관여하는 폐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조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의 과

확신을 향한 돌진인가, 진정한 용기인가

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부터 덜컥 감축해 버린다면, 약한 고리에만 심각한 타격을 줄 뿐 폐단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 늘 그렇듯이 문제는 ‘졸속’에 있다.

졸속은 원래 나쁜 뜻으로만 사용되던 것은 아니다. 손자(孫子)는 “전쟁은 서둘러야 빠르게 해야지 능숙하게 잘하려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승리를 추구하는 전쟁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이 군대를 오랫동안 동원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한 말이다. 모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쟁의 상황이라면 졸속도 미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졸속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옳은 일을 위한 결단과 실행은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공자(孔子)의 제자 자로(子路)는 옳은 일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물불 안 가리는 용기를 지닌 인물이다. 공자가 용기만큼은 자신도 자로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공자는 자로가 용맹함을 너무 좋아해서 악기를 연주해도 살벌하게 들린다며 핀잔을 주면서도, 고명하고 정대하여 못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 이미 올랐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묵혀두는 일이 없이 늘 과감하게 실행하는 자로를 보며 공자는 옳은 일을 들었더라도 일단 물러나서 생각해 보라고 타이렀다. 용기와 근심만 좋아하고 배우려 하지 않다가는 난(亂)과 광(狂)의 폐단이 이를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아무리 옳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주도면밀한 숙고와 준비가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마저 위

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약점 많은 자로였지만 그 모두를 덮고도 남을 만한 장점은 ‘남이 자신의 잘못을 말해주면 기뻐했다’는 면모다. 저돌적이고 용감한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는 귀를 닫기 십상이다. 자기 확신이 워낙 강해서 그에 맞는 말만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로가 공자의 애제자일 수 있었던 것은 외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와 폐단을 바로잡는 데에도 용감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연구개발 예산 졸속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야기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다시 살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바로잡을 일이다. 백신 연구개발 예산의 80%, 긴급재난 대응 연구의 90%를 삭감하면서 과연 철저한 검토와 조율을 거쳤는지, 간격을 이루는 기초연구사업 예산마저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이 향후 학문 생태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야말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로는 제명에 죽지 못할 듯하구나”. 일의 경중과 선후를 깊이 따지지 않고 확신을 향해 돌진하는 제자에 대한 공자의 애정과 걱정이 담긴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자로는 그리 명분이 서지도 않는 전쟁에서 작은 의리를 위해 싸우다가 허망하게 죽고 말았다. 옳다고 확신하는 일일수록 그것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 더 넓고 깊게 살핀 뒤에 실행해야 마땅하다. 사리를 헤아려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폐단을 갖추지 못한 용기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만다.

꿈꾸는 2040

유능한 정치인 감별사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시사평론가

“싸움이를 막아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을 살려주십시오.”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나온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선거 구호였다. 당시 국회 152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대국민 읍소 전략을 펼쳤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여당이 이렇게 참패를 당한 적은 처음이었다.

한 예로 광역단체장 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전국 16개 광역시 중 전북을 제외하곤 모두 패배했다. 불과 2년 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발한 민심이 열린우리당에 과반을 넘는 의석을 주었던 것에 비하면 민심의 변화는 당혹감을 넘어 정치학에서 두고두고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이 선거는 다음 해인 2007년 대통령선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선까지 패배하면서 보수진영에 정권을 내주었다. 그뿐 아니었다. 당내 분열도 가속화 되었다. 선거 참패로 인해 대통령과 당 지도율이 곤두박질했고 탈당한 의원들과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만나 통합민주당을 창당하였지만 이마저도 대선 패배 후 한국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합세한 민주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이렇게 분열과 이합집산을 거친 뒤 5년 후 치러진 2012년 대통령 선거 또한 보수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2017년에 와서야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지만 열린우리당 창당 시점인 2004년부터 시작된 크고 작은 선거의 패배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흑의 세월이었다.

그렇다면 민심은 왜 이렇게 혹독하게 돌아선 걸까. 일단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 기성 정치의 문법과는 다른 세상의 변화를 갈망한 사람들에게 의해 탄생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04년 총선은 여당의 152석과 민주노동당이 선거제 개편으로 인한 1인 2표제의 도입으로 10석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진보진영이 국회 의석 과반을 훌쩍 넘어 다수당이 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호기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변화인 개혁 입법에 번번이 실패하였고 여기에 정부와 여당간의 분열과 당 내 의원들의 무능이 겹치면서 민심은 진보진영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시계를 돌려 2020년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보다 훨씬 더 많은 거대 여당이 되었지만 2년 뒤 치러진 참미 대선에서 보수진영에 정권을 내주었다. 열린우리당처럼 거대 여당이 되었지만 번번이 개혁 입법에 실패했고 무능했다. 여기에 대선 패배 후 당내 분열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노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하였고 2020년은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문 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대자

뷰를 보는 듯 거대 여당은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국민들을 향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회 과반의 석이 필요하다는 읍소했고 이에 민심은 화답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여당으로서 국가적 아젠다와 산적한 사회현안에 대해 무능했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만을 염두한 채 당내 분열과 계파 싸움으로 민심을 외면한 결과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친노와 친문의 공통점은 대통령의 권세를 등에 업어 정치권에 진출한 것이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과 정치적 소신이 같고 함께하는 것 자체는 타할 일이 아니다. 정당 자체가 파당과 파벌로 무리를 지어 함께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능력 없이 오로지 권세에 얽혀 숭가락만 올리려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인들 중 무능한 사람들이 문제다.

문제는 내년 22대 총선이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친윤이나 비윤이나, 제1야당은 친명이나 비명이나를 두고 당내가 시끄럽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점에서 친명은 친노나 친문처럼 대통령 권세를 등에 업으려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친명당은 비명이든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타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왜 친명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와 자신이 왜 비명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모두 가짜라고 본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학습해야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사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유능함을 갖춘 능력있는 새로운 인물이다.

기고

예술인이 시장이라면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명'이 열렸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행사다. 백가쟁명은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광주시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발굴된 정책들은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정, 이를 광주시에서 실행하게 된다. 즉 시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실현하는 상향식 정책 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백가쟁명의 진행 과정은 만만치 않다. 올해 3월부터 광주문화재단에 예술인 및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도시 문제들의 순위를 파악해 7개의 의제로 정리, 각 의제를 담당할 분과마다 시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3개월에 걸쳐 분과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분과를 대표하는 7개의 정당이 만들어지고 정당의 핵심정책이 정리되기까지 대략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7개의 정당 특성을 반영한 당명도, 그 정책도 흥미로웠다.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제도(누구나 소중하방),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대변할 수 있는 예술인의회 설립(안전공정예술당), 마을에서 차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제도(츄추는 대자보당),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 실험가 사업(문화예술 일자리당), 기후와 환경을 위해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기후약방 지원(기후위기약당), 마을의 빈집을 문화예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주형 스콧' 지원(같이삼시당), 장애인과 이주민 등 소수자의 예술 활동 지원(삶

은 예술이당)이 그것이다.

백가쟁명 행사 당일, 시민들은 정당의 부스를 순회하며 설명을 듣고 미션도 해결해나가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갔다. 정당의 정책 발표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당원들이 각종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투표 또한, 실제 선거처럼 기표소와 기표함을 만들어 진행했다. 모든 과정은 말 그대로 축제와 같았다. 우리나라 선거나 정치도 이렇듯 축제처럼 즐거운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2023년 백가쟁명에서 시민들이 최종 선택한 ‘올해의 정책’은, 안전공정예술당에서 제안한 ‘예술인의회’ 설립이다. 아마도 시민들은 우리가 꿈꾸는 도시를 위해, 가장 먼저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예술인의회가 설립될 수 있다면 예술인의 권리와 안전, 생활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외롭게 싸워나가야 하는 처연한 상황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술인과 시민들이 만들고 선택한 정책 실행은 광주시의 몫으로 넘어갔다. 행사 과정을 광주시도 지켜봤으니,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의 무게가 어느 정도 인지는 충분히 파악했을 터이다. 이번 가을엔 예술인의회 설립을 위한 광주시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본다.

‘낙엽 하나로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광주시가 전해를 그 소식은 우리들의 상상이 현실화의 문턱을 넘어서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다.

社說

화장장 확충·조화 반입금지...바뀌는 장묘문화

매장 대신 화장(火葬)이 일반화 되면서 자치단체들이 화장장과 봉안당 등 화장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공원묘지에 조화(造花) 반입을 금지하는 등 장묘문화 전반에 변화가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사망자 10명 중 9명 가량이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지역 내 사망자 2만 5549명 가운데 88.7%인 2만 2683명이 화장을 선택할 정도로 화장문화가 정착했다.

이에 따라 화장시설 확충도 잇따라 광주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락공원은 2000년 개원 당시 3개에 불과했던 화장로를 11개까지 꾸준히 증설했다. 1만 5050기를 봉안할 수 있는 1추모관이 가독함에 따라 4만 5000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2추모관을 조성했지만 현재 10% 정도만 비어있다. 한달 평균 260여명이 추모관에 안치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1

년 6개월후에 2추모관도 가득찰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포화 상태에 이른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북구 효령동 일대에 4만 5000기의 영락공원 3봉안당과 화장로 6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자연장 수요를 감안해 2만 5000기 규모의 자연장지도 신설할 방침이다.

공원을 묘지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순천시 시는 지난해 설 명절부터 성묘 시 조화 반입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이 부산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편리성을 이유로 조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탓에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렇듯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장묘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런 만큼 자치단체들은 친환경적인 장묘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묘관에 안치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1

광주 지산IC 혈세 낭비 되풀이되지 않도록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IC) 진출로를 제시공하는 데 무려 49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산 IC 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사가 최근 선정돼 내년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공사는 오류를 바로잡는 제시공 성격이다. 지산 IC는 폭 6.5m, 길이 670m 도로로, 예초 2021년 11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다. 구도심 연결과 지산유원지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운전자에게 낯선 왼쪽 진출로가 개설돼 안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시가 진출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는 제시공을 결정해 기존 사업비 77억 원에다 4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지산 IC 공사는 공무원들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문위원들이 우측 진출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광주시 도로과 담당자들이 자문 의견 반영이나 추가 자문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문 위원 5명 중 3명은 좌측 진출을 전제로 한 하부 교차로 보완 의견을, 2명은 좌측 진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위원들은 좌회전 구간도 아닌데 고속도로 운행하는 왼쪽 차선에서 빠져 나가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보완 방안만 제시한 사업자 계획서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산 IC 공사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임에도 관련 담당자 8명은 훈계, 주의 처분에 그칠 전망이다. 사실상 법적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 행정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는 지산 IC 공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차 방한한 홍콩 영화배우 저우룬파(周潤發·주윤발·67)의 언행이 세간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는 1980년대 홍콩 누아르를 세계적 장르로 만든 주역이다. 영화 영웅본색, 첩혈쌍웅 등이 대표적이다. 검은 선글라스에 삼관총, 트랜치코트에 입에 문 생강개비, 특유의 눈빛과 분위기는 시대를 사로잡았다. 중형사해, 와호장룡, 도신 등 드라마, 코미디, 사극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기를 펼치는가 하면 캐리비안의 해적 등에 출연하며 할리우드 스타의 품격

언행을 일관되게 보여 왔다.

저우룬파의 품격은 지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며 좌중을 주도했다. 배우 생활 50년을 맞아 늙어감에 대해 “태어나면 죽는 게 인생이라는 점에서 나이 드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현재를 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 기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된다”면서 “하루에 밥 두 그릇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홍콩 영화의 침체 이유를 논고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중국의 견열 요구가 많다”고 중국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저우룬파는 노점상을 하는 흠어머니 밑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공장 직원, 우편 배달부 등을 지내면서도 영화계의 큰 별로 성장했다. 인생 역정을 통해 밝혀진 그의 품격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정정이 난무하고 민생이 표류하는 우리 현실에 깊은 울림을 준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52	예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64	체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